

2024년  
고3  
6월 학평

## 2024년 시행 고2 6월 학평 국어 문학 | 저수지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### 지문 분석

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(저수지에 담기거나 비치는 자연물. 자신의 내면에 접근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태도)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

▶ 1연: 주변의 모든 이를 포용하는 저수지

[ 모난 돌멩이라고

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

검은 돌멩이라고

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]([ ]: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수지. **부정적 존재에 대한 저수지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**)

▶ 2연: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도 포용하는 저수지

산이고 구름(큰 존재들. 나무·새와 대조)이고

물가에 늘어난 나무며 나는 새(작은 존재들. 산·구름과 대조)까지

겹쳐서 들어가도

어느 것 하나 상처입지 않는다(주변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태도)

▶ 3연: 크고 작은 존재를 가리지 않고 포용하는 저수지

바람은

[ 쉴 새 없이 넘어가는

수면 위의 줄글을 다 읽기는 하는 건지 ]([ ]: 많은 존재를 포용하는 저수지)

▶ 4연: 수많은 존재를 포용하는 저수지

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(하늘까지 받아들이는 저수지의 넓은 포용 범위. **해당 구절에서 나타나는 저수지의 속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**)

바닥이 깊고도

높다

▶ 5연: 저수지의 넓은 포용력  
- 권정우, 「저수지」

### 핵심 정리

- 갈래: 자유시, 서정시
- 성격: 비유적, 포용적
- 제재: 저수지의 포용력
- 주제: 주변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저수지의 태도
- 특징
  - 물에 비친 대상을 저수지가 '포용한다'라는 인식을 제시함.
  -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함.
  -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함
  -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함

### 이해와 감상

이 작품은 2005년 등단한 권정우 시인의 작품으로, 그의 첫 시집인 '허공에 지은 집'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.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저수지는,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이들과까지도 부드럽게, 들어오는 이를 가리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포용하는 속성을 지녔다.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'어느 것 하나 상처 입히지' 않으려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.

서지정보

저자 정준희

발행처 나무아카데미

isbn

제본형태 hwp pdf 파일

발행일 20240618

가격 500원